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 방문

- 비클시스템 방문 간담회 -

□ 모두발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수준입니다.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에게 기회를 줄려고 해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마음이 있어도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실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비용이 듭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경영마인드와 인사문화와 함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수한 환경부터 먼저 조성하고 장애인을 집중 고용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을 보니 기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다는걸 느꼈습니다.

남은 일은 널리 알리고 확산되도록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하는 게 정부 과제입니다. 적극적, 효율적으로 정책을 하면 이런 사업장에 도움이 됩니다. 몇 년간 모범사업장을 하다가 몇 년 뒤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비클사업장은 10년, 20년 번영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업공정을 보면서 이 경쟁력 언제까지 유효하는지 의문을 가졌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기술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정의 효율화 못지않게 기술력이 경쟁에서 큰

요소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표준사업장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기술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후에 기술력을 갖도록 조건들을 잘 검증하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앞서 가시는 분들이 좋은 정보와 아이디어 많이 주십시오.

□ 주요 대화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공공부문도 앞서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장애인 고용정책도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정착돼야 성공한다. 다음 단계로 시장친화적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을 만들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장애인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의무고용 비율도 높아졌다. 정부도 풍부한 정책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형태를 다양화해야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교육부 중등정책교육국 같은 곳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등 교육·복지·노동부서에 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교육대에 장애인 입학비율을 의무화할 수 없느냐.(김대환 장관, “장애인 차별을 안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대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고 답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어도 고용하기가 힘들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경영마인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문화와 함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작

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정의 효율화 못지않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장애인 복지, 고용 등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